<h1>나 혼자만 레벨업-9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o08d722dfc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8화</p>  
<p>"와! 오빠, 기자들 아직도 있어."</p>  
<p>진아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다.</p>  
<p>늦은 시간.</p>  
<p>아직도 떠나지 않은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 주변에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.</p>  
<p>"저기!"</p>  
<p>인영을 발견한 기자들이 진우인 줄 알고 허겁지겁 셔터를 눌러댔다.</p>  
<p>찰칵 찰칵 찰칵!</p>  
<p>갑자기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져 나오자, 진아는 화들짝 놀라 커튼을 쳤다.</p>  
<p>촤르륵-</p>  
<p>돌아선 동생이 작은 동물처럼 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휴-."</p>  
<p>헌터옥션에서 다녀온 뒤,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진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.</p>  
<p>"내려가서 한 마디 하고 올까?"</p>  
<p>휴식이 방해받는 건 괜찮다.</p>  
<p>하지만 동생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다.</p>  
<p>진아는 고3 수험생.</p>  
<p>좀 민감하다 싶은 애들은 방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거슬린다고 신경질을 내는 시기가 아닌가?</p>  
<p>'진아가 까탈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긴 하지만...'</p>  
<p>그래도 주위가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중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.</p>  
<p>진우가 나서려고 하자.</p>  
<p>"하지마, 하지마."</p>  
<p>진아가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안 그래도 오빠 지금 인터넷에서 욕 먹고 있는데, 기자들까지 쫓아내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."</p>  
<p>"욕?"</p>  
<p>내가 언제 욕먹을 만한 짓을 했던가?</p>  
<p>고개를 갸웃하는 진우에게 진아가 인터넷 기사 하나를 내밀었다.</p>  
<p>진우는 진아의 폰을 받아들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화면 속에는 협회 문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태연스럽게 전화를 받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떠있었다.</p>  
<p>역시 전문가가 찍어서 그런지 평범한 모델로도 제법 근사한 사진이 나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다.</p>  
<p>그런데 기사를 조금 내려보니.</p>  
<p>'태도가 건방지다.'</p>  
<p>'벌써부터 기자들은 안중에도 없다.'</p>  
<p>'완전 쿨하다.'</p>  
<p>같은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있고, 그중 가장 추천이 많은 댓글은 '엄마, 나 S급 합격했어요!' 였다.</p>  
<p>사진과 댓글이 너무 절묘하게 어울려서 진우는 피식 웃고 말았다.</p>  
<p>진아가 그걸 보고 기막혀했다.</p>  
<p>"오빠는 웃음이 나와?"</p>  
<p>"웃기잖아."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가 베스트 댓글을 보여주자 진아도 웃음을 터트리려다 가까스로 참아냈다.</p>  
<p>그 반동일까?</p>  
<p>"아니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!"</p>  
<p>진아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왜 거기서 전화를 받은 거야?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. 덕분에 내 이름까지 다 퍼졌잖아."</p>  
<p>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.</p>  
<p>"내가 동생 전화 받는 것도 기자들 눈치를 봐야 하냐?"</p>  
<p>"윽!"</p>  
<p>진아는 할 말이 없어졌다.</p>  
<p>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 딱히 반박할 구석이 없었다.</p>  
<p>'...말로는 못 당하겠다니까.'</p>  
<p>진우는 폰을 넘겨주었다.</p>  
<p>"자."</p>  
<p>조금 분한 얼굴로 폰을 돌려받은 진아가 말했다.</p>  
<p>"어쨌든 난 괜찮으니까. 오빠도 기자들 신경쓰지마."</p>  
<p>"오케이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면 몰라도, 하루 이틀 뒤면 기자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협회의 연락이 있었다.</p>  
<p>'그 정도는 참지 뭐.'</p>  
<p>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걸 진아가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.</p>  
<p>"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."</p>  
<p>진아가 신기하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"오빠가 S급 헌터가 되고, 기자들이 집에 몰려오고..."</p>  
<p>살면서 한번 마주치기도 힘들다는 S급 헌터가 바로 눈앞에 있고, 그게 자기 오빠라니.</p>  
<p>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진아 역시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였다.</p>  
<p>하지만 곧 진아도 바뀐 현실에 적응해나갈 것이다.</p>  
<p>'내가 그랬듯이.'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었다.</p>  
<p>그리고 아직도 놀란 가슴이 다 진정되지 않았을 동생을&nbsp; 다독여주는 의미로, 진아의 볼을 살짝 잡아당겼다.</p>  
<p>진아는 평소처럼 즉시 발차기로 대응했지만.</p>  
<p>"아!"</p>  
<p>도리어 자신의 발등을 붙들고서 사방을 콩콩 뛰어다녀야 했다.</p>  
<p>"히잉."</p>  
<p>진아는 너무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흘겼고,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.</p>  
<p>아직 자기 오빠가 S급 각성자라는 사실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다.</p>  
<p>"오빠 이제부터 바빠지겠네?"</p>  
<p>진아가 조심스레 물었다.</p>  
<p>"음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하고 싶은 일도 많고, 해야 할 일도 많지만, 일단은 악마성 클리어부터였다.</p>  
<p>상층부 공략을 위해 화속성 방어구 아티팩트들까지 구했으니까.</p>  
<p>가진 돈으로는 한참이나 부족해서 철렁했지만, 다행히 상점표 A급 아이템들을 담보 삼아 헌터옥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.</p>  
<p>'S급 헌터가 되자마자 빚이라니...'</p>  
<p>왠지 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상점표 아이템들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린다면 빚이야 금방 청산되기야 한다만.</p>  
<p>"그럼 오빠 보기 더 힘들겠네."</p>  
<p>앞으로 바빠진다는 말에 진아가 약간 아쉬운 표정을 했다.</p>  
<p>혼자 있으려면 쓸쓸하겠지.</p>  
<p>진우는 진아 머리 위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.</p>  
<p>앞으로 며칠.</p>  
<p>악마성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면 이제 동생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하는 일은 없어질 거다.</p>  
<p>'내가 꼭 그렇게 만들 테니까.'</p>  
<p>그때.</p>  
<p>진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.</p>  
<p>'누가 이쪽으로 온다.'</p>  
<p>진아도 오빠의 이상을 눈치챘다.</p>  
<p>동생이 불안한 눈초리로 물었다.</p>  
<p>"오빠?"</p>  
<p>"넌 들어가 있어."</p>  
<p>"무슨 일인데?"</p>  
<p>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선 기척 하나가 곧장 이리로 오고 있었다.</p>  
<p>'헌터...?'</p>  
<p>수상한 기척은 미약하게나마 마력을 품고 있었다.</p>  
<p>기척에게서 딱히 적의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 했지만, 그래도 허락받지 않은 손님이 달갑지는 않았다.</p>  
<p>길드에서 보낸 사람일까?</p>  
<p>아니면 각성자의 힘을 맹신해 대담하게 움직인 기자?</p>  
<p>어느 쪽이든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예고도 없이 남의 집을 방문하려는 불청객에게 웃으면서 대할 정도로 아량이 넓지는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문 앞에 섰다.</p>  
<p>'이 정도면...'</p>  
<p>무기를 불러낼 필요도 없다.</p>  
<p>진우는 몸을 가볍게 풀었다.</p>  
<p>목을 좌우로 움직이자 우두둑 소리가 났다.</p>  
<p>예상대로.</p>  
<p>쿵쿵.</p>  
<p>누군가 문을 두어 번 두드렸고, 놀란 동생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.</p>  
<p>진우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.</p>  
<p>덜컹.</p>  
<p>천천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낯익은 젊은 남자 하나의 얼굴 하나가 보였다.</p>  
<p>남자는 말했다.</p>  
<p>"형니임..."</p>  
<p>훌쩍이면서.</p>  
<p>코까지 빨개진 유진호가 문 앞에 서서 훌쩍대고 있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더니, 유진호가 울먹이며 말했다.</p>  
<p>"형님, 저 쫓겨났습니다. 아버지께서 쫓아내셨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그러고 보니 유진호는 등에 지 덩치만한 백팩을 짊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손 양쪽에도 짐이 한 가득이었다.</p>  
<p>"...너 원래 따로 살지 않았었냐?"</p>  
<p>"그게..."</p>  
<p>훌쩍.</p>  
<p>"제가 살던 빌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있던 거였는데 뺏겼고, 제 계좌들까지 전부 다 막혔습니다."</p>  
<p>아버지가 아들의 은행 계좌를 전부 막는다라.</p>  
<p>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, 대한민국 제계의 일인자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회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했다.</p>  
<p>그런데 이 녀석은 대체 뭔 짓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아버지의 미움을 단단히 사게 된 걸까?</p>  
<p>진우가 의문스런 시선으로 빤히 바라보고 있을 때, 유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.</p>  
<p>"그래서 말인데요. 형님. 제가 당분간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?"</p>  
<p>끼이익-</p>  
<p>덜컹.</p>  
<p>진우는 차분히 문을 닫고 걸어잠그기까지 했다.</p>  
<p>철컥.</p>  
<p>돌아서는 진우에게,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던 진아가 쪼르르 달려와 물었다.</p>  
<p>"오빠, 방금 누구야? 아는 사람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니. 처음 보는데."</p>  
<p>"모르는 사람이야? 그런데 우리 집엔 왜 왔대?"</p>  
<p>"신경 쓰지 마.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."</p>  
<p>"...정말?"</p>  
<p>아닌 것 같던데.</p>  
<p>미심찍어 하는 진아를 방으로 밀어 넣는 진우의 등 뒤로, 유진호의 서글픈 목소리가 이어졌다.</p>  
<p>쿵쿵!</p>  
<p>"형니이임-임! 형니임!"</p>  
<p>\*\*\*</p>  
<p>"여보, 오늘 진호한테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니에요?"</p>  
<p>"흥."</p>  
<p>유명한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.</p>  
<p>고얀 녀석.</p>  
<p>앞으로 유진 건설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될 유진 길드를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 따위라니.</p>  
<p>"저는 형님 길드로 갈 겁니다."</p>  
<p>뭐?</p>  
<p>형님을 따라가?</p>  
<p>"그 녀석은 그래도 싸다오."</p>  
<p>유명한은 콧방귀를 꼈다.</p>  
<p>홀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서야지.</p>  
<p>모든 서낵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.</p>  
<p>흥분한 상태여서일까?</p>  
<p>오늘따라 더 넥타이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다.</p>  
<p>서툰 손놀림에 결국 넥타이가 엉키기 시작하자, 유진의 안주인이 손을 뻗었다.</p>  
<p>"제가 해드릴게요."</p>  
<p>이내 넥타이가 매끄럽게 풀렸다.</p>  
<p>유명한은 가만히 부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부인이 다 풀린 넥타이를 손에 쥐고서 쿡쿡하고 웃었다.</p>  
<p>"왜 그러시오. 부인?"</p>  
<p>유명한은 의아했다.</p>  
<p>자기 대신 평생 메어주고 풀어주던 넥타이다. 이제 와서 엉킨 넥타이가 웃기지는 않을 텐데.</p>  
<p>"당신. 정말 화가 난 거 맞아요?"</p>  
<p>"음...?"</p>  
<p>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.</p>  
<p>무슨 실없는 소리를.</p>  
<p>유명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.</p>  
<p>'아니...'</p>  
<p>스스로 놀랐다.</p>  
<p>입으로는 방금 전까지도 투덜대고 있었던 자기 모습이 어째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걸까?</p>  
<p>민망해진 유명한이 자신의 뺨과 턱을 만지작거렸다.</p>  
<p>"오늘 처음이었죠?"</p>  
<p>"뭐가 말이오?"</p>  
<p>"진호가 당신께 대든 것."</p>  
<p>"..."</p>  
<p>그래서 화가 난 것이다.</p>  
<p>기업은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거대한 몸뚱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.</p>  
<p>가정도 그렇다고 믿어왔다.</p>  
<p>때문에 항상 집에서도 회사에 있을 때와 같은 태도를 고수해왔고, 결정에 반발하는 일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.</p>  
<p>헌데.</p>  
<p>오늘은 어째서 화가 나는데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일까?</p>  
<p>'화가 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?'</p>  
<p>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.</p>  
<p>부인은 남편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,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.</p>  
<p>"진호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. 당신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응원해주시는 게 어때요?"</p>  
<p>"..."</p>  
<p>유명한은 입을 꾹 다물었다.</p>  
<p>자신도 자기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기 힘들었다.</p>  
<p>"일단... 조금 더 지켜보겠소."</p>  
<p>"그러셔야죠."</p>  
<p>부인은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벗는 상의를 받아들였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.</p>  
<p>유명한이 아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.</p>  
<p>"참 이상하구려."</p>  
<p>"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신가요?"</p>  
<p>"당신 얼굴이 두 개로 보이니 말이오."</p>  
<p>"네?"</p>  
<p>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유명한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.</p>  
<p>"여보?"</p>  
<p>놀란 부인이 급히 유명한을 부축했다.</p>  
<p>연신 고개를 저어대던 유명한이 거친 숨을 토해냈다.</p>  
<p>"허억, 허억."</p>  
<p>부인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무슨 식은땀을 이렇게!'</p>  
<p>유명한은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떨쳐내려고 눈을 부릅떴으나,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유명한은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VIP 실에서 눈을 떴다.</p>  
<p>순번을 정해 24시간 돌아가며 그의 병실을 지키고 있던 전담의가 다가와 유명한의 안색을 살폈다.</p>  
<p>"정신이 드십니까, 회장님?"</p>  
<p>"..."</p>  
<p>잠깐 주변을 둘러본 유명한이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.</p>  
<p>"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나?"</p>  
<p>"꼬박 이틀을 잠들어 계셨습니다."</p>  
<p>이틀이나?</p>  
<p>성실함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람이 유명한이었다.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다섯 시간 이상 눈을 붙인 적이 없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유명한이 곧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.</p>  
<p>"많이 지쳤었던 모양이군."</p>  
<p>최근 여러 가지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는 했다. 갑작스런 현기증과 떨칠 수 없었던 졸음은 그 여파이리라.</p>  
<p>그러나 전담의는 심각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.</p>  
<p>유명한은 수십만 직원을 아래에 두고 있는 국내 굴지 기업의 오너.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이었다.</p>  
<p>굳어지는 의사의 얼굴을 보고 유명한이 물었다.</p>  
<p>"혹시... 내 몸에서 무슨 이상이라도 발견된 건가?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